

## I. 주간 경제 동향

### 1. 경제 개관

- (외환·금융시장) 외환수급 사정은 호전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의 여파와 동남아시아 불안 요인으로 인해 환율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음. 콜금리 및 회사채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으나 자금사정은 여전히 경색되어 있음
- (경기) 산업생산이 사상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어 국내 경기는 장기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수출입) 4월중 상품수지는 사상 최대의 흑자인 3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출은 아직 호전되지 않고 있음

### □ 외환·금융시장 동향

- (외환시장) 외환수급 사정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의 노사경위원회 불참 및 총파업 선언, 동남아 위기의 재현 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짐
  - 외평채 40억 달러 조달 이후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수급사정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4월 30일 현재 거주자외화예금이 80억 달러, 종금사의 원/달러 스왑자금이 25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음
  - 그러나, 외환수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환율은 경제 기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절상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 최근 노사관계 불안과 동남아시아 통화 위기 재현 우려때문에 싱가포르 역외선물환율이 1,700대에 근접하는 등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자금시장) 정부와 IMF가 금리 인하에 합의하였지만, 자금경색 현상은 풀리지 않고 있음. 다만, 기업어음부도율은 크게 하락
  - 콜금리가 4월 24일부터 20% 이하로 진입한 이래 최근 18%대까지 하락하고 있음. 이는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RP 시장 및 콜 시장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임
  - 회사채 수익률도 4월 말 이후 17%대에 다시 진입하고 있음
  - 중소기업 CP만기연장 조치로 기업 부도율이 하락하고 있음. 4월중 부도율이 97년 11월 0.41%보다도 낮은 0.36%(서울지역)로 3월의 0.49%에 비해 크게 하락

· 그러나, 민간부문의 자금 경색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고 있는 것은 아님

< 기업부도율 추이 >

	%	97			98			
		97.10	97.11	97.12	98.1	98.2	98.3	
서울지역부도율	0.10	0.46	0.49	0.41	0.78	0.58	0.69	0.49
부도업체수(일평균)	382(16)	557(21)	560(22)	568(22)	1,218(49)	1,226(56)	1,116(46)	973(37)
전국부도업체수 (일평균)	966 (39)	1,431 (51)	1,435 (55)	1,469 (57)	3,197 (128)	3,323 (151)	3,377 (141)	2,746 (106)

□ 산업활동으로 본 경기 동향

- (경기) 외환유동성 위기는 넘겼지만, 그 여파로 국내 경기는 사상 최악의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

- 98년 1/4분기중 산업생산은 7.8% 감소. 이는 GDP성장률이 2% 이상 떨어졌음을 의미함
- 그 결과 1/4분기의 제조업 가동률은 67.3%에 불과. 일부 중소기업의 가동률은 85년이래 최저 수준인 40%대로 하락함

- (원인) 이는 극심한 내수 침체, 특히 투자와 소비의 대폭적인 감소에 기인

- 1/4분기중 수출용 출하가 30% 증가한 반면, 내수용 출하는 22.6%나 감소
- 소비도 1/4분기중 10%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는 주로 자동차, 가전용 기기 및 장비, 음식료품, 종합소매 등의 판매부진에 기인함
- 투자 부진(1/4분기, -32%)은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기계 발주가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고, 건설투자의 경우도 발전시설, 지하철 발주 감소와 민간부문의 주택, 공장, 사무실 발주 감소로 24.5%로 감소

- 업종별 경기 현황

- 자동차: 내수판매 40~50% 감소 전망, 가동률 40% 수준으로 저하(97년 72%)
- 가전: 내수판매 35~40% 감소 전망, 가동률 98년 1/4분기 64%로 감소(97년 88%)
- 건설: 1/4분기 건설수주가 24.5% 감소
-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은 수출로 활로를 타개하고 있으나 수출 단가의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음(1/4분기중 수출 단가 30% 하락)

## &lt; 1/4분기 산업활동동향 &gt;

(전년동기대비,%)

		97			98		
		3	1/4	연간	2	3	1/4
생산	생산	7.1	5.4	6.9	-1.7	-10.1	-7.8
	출하	4.1	1.6	5.0	-3.7	-10.4	-7.5
	재고	12.7	12.7	5.3	-0.2	-4.9	-4.9
	평균 동률	80.8	79.8	79.9	68.8	65.2	67.3
소비	도소매 판매액	3.7	2.5	3.2	-11.4	-10.6	-10.2
	내수용 소비재 출하	-2.6	-3.5	-1.5	-18.4	-21.7	-19.6
투자	설비 투자 추계	1.6	5.0	-2.1	-26.2	-36.7	-31.8
	설비 투자 추계	46.3	7.7	3.3	-28.0	-50.6	-39.3
	건설 투자 추계	51.8	34.4	4.7	-19.9	-29.6	-24.5

## □ 4월중 수출입 동향

- (상품수지동향) 수출은 7.0% 증가한 122억 달러, 수입은 -35.5% 감소한 83억 달러. 상품수지 흑자액이 3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
- (수출) 통관일수가 4월중 하루 많은 것을 고려하면 수출증가율은 약 4%
  - 품목별 수출: 철강제품(32.0%), 석유화학제품(16.9%), 일반기계, 섬유제품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와 자동차는 감소세로 전환
  - 지역별 수출: 미국(13.8%), EU지역(20.6%)은 증가세 지속. 아세안(-30.3%), 일본(-15.6%)은 감소세. 중국은 회복세(-0.2%)
  - 해외바이어의 단가인하압력: 1/4분기중 수출물량증가율은 34.9%에 달하고 있으나, 수출단가상승율이 -19.4%의 감소세를 보였음
  - 수출입 부대비용이 환율상승 효과를 잠식: 환가료는 97년 11월 이전 리보 +1~1.5% 수준이었던 것이 4월중에는 리보+5.5~7%까지 상승하였고, 매매수수료도 매매기준율±0.4% 수준에서 매매기준율±1.5~2.5%까지 상승
  -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에 대한 반덤핑 움직임이 일고 있음
- (수입) 원자재 수입감소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자본재 및 소비재의 감소폭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원자재-32.8%, 자본재-42.1%, 소비재-41.7%)
  - 자본재, 소비재의 수입 감소가 내수침체를 반영한다면, 필수원자재의 경우

는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기피 및 L/C 개설 지연 등으로 연지급수입 중단 등이 수입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액도 14억 달러에 달함
- 원자재의 국제가격변동을(오퍼가격 기준, 97.3월 대비, %): 원유(-37.3%), 천연고무(-41.5), 펄프(-4.5), 원피(-24.1), 원면(-7.9), 전기동(-27.2), 납사(-35.2), 고철(-12.8), 원당(-5.6), 알루미늄(-11.7)
-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석유소비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석유류소비 증감율, -2.2(97.12) → -21.8(98.1) → -16.2(98.2) → -8.9(98.3)

## □ 주간 경제 지표

### - 원/달러 환율 : 불안 조짐 확산

환율이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지연과 노동계 불안, 동남아 금융 불안 확대와 함께 S&P의 3년 이내 한국 신용등급 불변 전망에 따라 외국인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음. 역외선물환시장에서의 원화선물환율은 1,600원대까지 상승한 상황임. 5월 9일 현재 1,392.4원 기록

### - 주가 : 외국인 매수 감소로 하락세

그동안 관망세를 보여오던 외국인들이 동남아 금융 불안과 S&P의 신용등급 불변 전망에 따라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며 순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종합주가지수는 400 포인트선이 무너짐. 5월 8일 현재 종합주가지수 373.04 포인트 기록

### - 금리 : 금리 인하 합의에 따라 하락세

정부-IMP의 금리 인하 합의에 따라 장단기 시중금리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냄. 그러나 동남아 금융 불안 확대, 노동계 불안, 은행 신탁계정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에 따른 채권 매수 기반 약화 등 불안요인에 따라 하락세가 일단은 멈춘 상황임. 5월 8일 현재 회사채 수익률 17.70% 기록

### - 엔/달러 환율 : 상승세 지속

인도네시아의 정세 불안이 엔화와 일본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큼의 파장이 미치지 않는 가운데 엔화는 132~133엔대에서 등락

을 거듭. 이번 주 G7 재무장관 회의 결과와 미국의 금리 인상 논의에 따라 향후 엔화 환율의 향방이 결정될 것임. 5월 8일 현재 132.85엔 기록

< 國內 經濟 指標 >

		97년	98.1월	2월	3월	4월	5월 8일	98년 전망치 (기간 평균)	최근 추세	원 인	
실물지표	무역 수지 (통관기준,억불)	-84.5	14.5	47.2	84.0	123.4	-	256	축자 지속	수출 증가, 수입 급감	
	경상 수지 (억불)	-86.2	30.6	69.9	106.9	-	-	280	축자 지속	상품서비스 수지 축자	
	물가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6.6	8.3	9.5	9.0	8.8	-	9.2	급등 추세 완화	환율 안정 국제원자재가 하락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비,%)	10.9	15.2	17.7	17.5	17.5	-	16.2		
		실업률(%) (월별 계절조정)	3.1	4.1	4.7	5.3	-	-	6.0	급등	부도 급증, 감원 확산
금융지표	환율	₩/\$	1,415.2	1,688.8	1,640.1	1,387.0	1,338.2	1,392.4 (9일)	1,400	급등	노사관계 악화 동남아 통화위기
		¥/\$	130.57	126.95	126.08	131.90	132.38	132.85	134	상승	美 금리 인상설, 부양책 미흡
	금리 (%)	RP 금리	35.0	29.0	24.2	24.0	19.14	18.5	-	하락	IMF와 단계적 금 리 인하 합의
		회사채 수익률	28.98	18.50	20.50	18.28	17.70	17.70	17.5		
		CP 수익률	35.00	21.00	24.50	22.20	19.00	18.20	-		
		당좌대출금리	35.01	28.15	25.98	24.58	-	-	-		
		종합주가지수	376.31	567.38	558.95	481.04	421.2	373.0	550	하락	외국인 매도세 증가
	외환보유고 (억불)	204.1 (88.7)	235.2 (123.6)	267.2 (185.4)	297.5 (241.5)	355.4 (307.6)	-	510 (400)	증가	경상수지 축자, 외평채 발행	

주: 1) 환율, 금리, 종합주가지수, 외환보유고는 기말 기준

2) 무역수지는 연간 누적 수치임

3) 외환보유고의 ( )는 가용외환보유고(외환보유고-해외점포 예치금)를 나타냄

(전 병 유 bycheon@hri.co.kr ☎724-4011)